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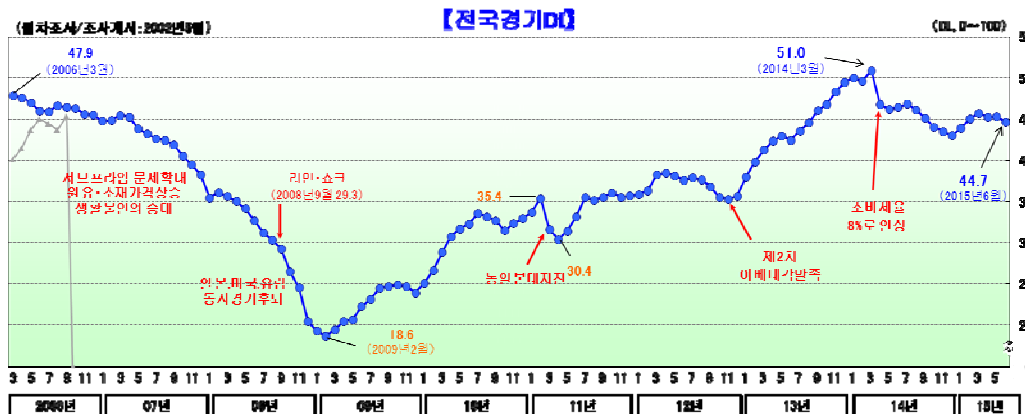
국내경기, 정체감 강해지다

~국내외의 리스크 상승으로, 향후에도 회복력을 느낄 수 없는 상황계속~

(조사대상 2만 3,442사, 유효회답 1만 867사, 회답률 46.4%,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의 포인트

- 6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6포인트 감소한 44.7이 되어 2개월만에 악화되었다. 연료가격의 상승이나 공공공사의 감소,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 등 악재료가 많았던 데다, 호우에 의한 기상 불안정도 경기를 억눌렀다. 국내외에 있어서 불안한 재료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경기는 정체감이 강해지고 있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회복력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 업계별로는 『건설』 『제조』 『도매』 『운수·창고』 등 10업계 중 8업계가 악화되었다. 『건설』은, 공공공사의 감소가 계속된데다 기업의 설비투자도 저조하여 공조 설비기구나 전기통신공사 등의 악화요인이 되었다. 6월의 경기는 『건설』과 『도매』의 2개 업계에서 악화폭 전체의 5할 이상을 점유하는 결과가 되었다.
- 지역별로는 『북해도』나 『호쿠리쿠』 『큐슈』 등 10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악화되었다. 『큐슈』에서는 카고시마시에서 6월의 강수량이 100년만에 기록을 갱신하는 등 각지에서 호우가 계속된 결과, 공사의 진척이 지연된 건설이나 더욱이 일조부족에 의한 야채등의 가격이 상승하여 농림수산물이나 소매등에 악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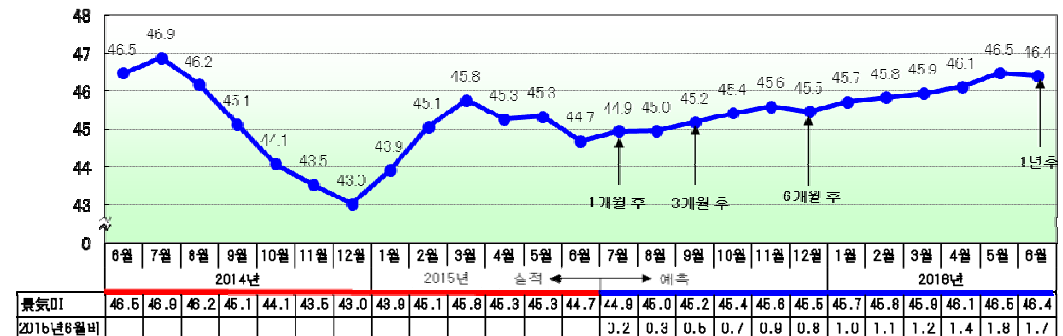
< 2015년 6월의 동향 : 정체 >

2015년 6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6포인트 감소한 44.7이 되어 2개월만에 악화하였다.

6월은 엔저 등을 배경으로 한 기업업적의 개선 영향으로 니케이 평균주가가 거래기간 중으로 켜는 1996년 12월이래 약 18년만의 고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가솔린이나 경유가격이 10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등, 일손부족에 의한 인건비 상승이나 엔저에 동반하는 원재료가격의 상승 등 서서히 코스트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공공공사의 발주전수 및 금액이 감소하고 지역경제의 체감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큐슈』 등 서일본을 중심으로 호우에 의한 기상 불안정도 악영향을 미쳤다. 반면 해외에서는 그리스가 채무문제를 둘러싸고 유럽연합(EU)등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디폴트(채무불이행)로의 염려가 높아져 월말에 걸쳐 금융시장은 크게 동요하게 되었다. 국내경기는 국내외에 있어서 불안재료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체감이 강해지고있다.

< 향후의 전망 : 대부분 보합 >

중업원의 평균급여 총액이 2개월 연속 증가하고 여름철 상여도 증가 전망이 되는 등, 기업의 임금상승은 호재료가 된 이외에 대형 인프라 투자도 높은수준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국가안전보장 관련법안에 관한 국회심의의 영향으로 신성상 전락이나 기개있는 방침 등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정체감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해외에서는 그리스에 있어서 실질상의 디폴트에 의한 국제금융시장의 불투명감이 높아진 이외에, 중국의 성장둔화도 불안재료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국내외의 리스크 고조도 있으며 회복력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예측은, ARIMA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 ARIMA 모델로 분석

업계별: 10개 업계 중 8개 업계에서 악화, 『도매』가 전체를 0.23포인트 내림새로

- 『건설』 『제조』 『도매』 『운수·창고』 등 10개 업계 중 8개 업계가 악화하였다. 『건설』은 공사수요가 저조하여 공조설비기구나 전기통신공사등의 악화요인이 되었다. 6월의 경기는 『건설』과 『도매』의 2개 업계에서 악화폭 전체의 5할 이상을 점유하는 결과가 되었다.
- 『건설』 (47.7)…전월 대비 0.9포인트 감소. 3개월 연속으로 악화하였다. 공공공사의 발주건수·청부금액이 함께 대폭적인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직공부족이 계속되는 가운데 건설자재의 강보합이나 인건비의 상승 등으로 어려운 수익상황이 되고있다. 기업의 설비투자가 좋지 못하여 공조설비기구나 전기통신공사가 저조하였다. 「초봄에서부터 서서히 정체감이 강화되어 왔다」(방수공사) 등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이 『건설』은 3개월 연속으로 50을 하회하였다.
- 『제조』 (44.0)…동 0.5포인트 감소. 2개월만에 악화하였다. 섬유관련의 국내소비가 침체하는 가운데, 「섬유·섬유제품·복식제품제조」(39.4, 동 2.3포인트 감소)는 중국에서의 염가품 수입증가나 음식점의 침체에 의한 유니폼의 단가하락등도 영향을 미쳤으며 3개월만에 30대로 저하하였다. 「화학제품제조」(43.9, 동 0.5포인트 감소)는 해외와의 경쟁이나 만성적인 공급과잉이 계속되는 가운데, 포장자재의 둔화 움직임도 있어 플라스틱 관련 제품의 제조를 억누르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엔저에 의한 원재료 가격의 급등으로 코스트 상승에 직면하는 한편, 판매가격으로 전가되지 못하여 이익률이 악화되고 있다. 「음식료품·사료제조」(43.1, 동 1.2포인트 감소)등 『제조』는 12개 업종 중 10개 업종이 악화하였다.
- 『도매』 (41.7)…동 0.8포인트 감소. 2개월만에 악화하였다 「섬유·섬유제품·의류 복식제품도매」(34.8, 동 2.2포인트 감소)는 대기업 의류브랜드의 철수나 점포폐쇄 발표등 복식제품소매의 대폭악화를 받아 여성·아동복이나 속옷류, 직물도매 등을 중심으로 크게 악화하였다. 「종이류·문구·서적도매」(34.5, 동 3.6포인트 감소)는 거래처인 「출판·인쇄」의 침체영향을 받은 종이제품이나 일·양식 종이 이외에 취득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인기의 쇠퇴에 의해 문방구·사무용품 등에서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경차판매의 감소로 자동차부품이나 전기기계기구가 저조한 「기계·기구도매」(45.1, 동 1.2포인트 감소)등, 『도매』의 체감경기 악화는 전체를 0.23포인트 억누르는 결과가 되었다.
- 『운수·창고』 (42.6)…동 2.2포인트 감소. 2개월만의 악화. 소비세율이 인상된 2014년 4월(동 5.3포인트 감소)이래 대폭악화 되었다. 가솔린이나 경유등 연료가격이 서서히 상승하며 코스트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공사의 감소나 농산물 출하의 감소, 하주기업의 생산조정 등으로 저조한 화물이동이 되어 일반화물 자동차운송(동 3.5포인트 감소)의 체감경기는 2014년 4월(동 7.5포인트 감소)이래의 대폭악화 되었다.

		14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비	
농·임·수산		40.7	43.0	45.1	40.9	42.1	41.8	38.6	39.5	41.3	40.0	44.0	43.7	45.0	1.3	
금융		46.6	47.5	49.2	47.9	47.1	44.9	45.3	45.2	45.1	44.7	48.0	48.1	47.4	▲ 0.7	
건설		51.7	52.7	53.5	53.2	52.8	51.6	51.0	50.3	50.4	50.4	50.8	49.3	48.6	▲ 0.7	
부동산		48.3	48.8	47.4	46.8	47.0	45.2	43.6	44.1	45.1	47.2	48.8	48.8	49.6	0.8	
제조	식품료품·사료제조	40.4	40.4	39.9	39.8	39.5	39.0	36.8	37.5	37.2	39.8	43.1	42.1	44.3	2.2	
	섬유·섬유제품·장신구제조	43.1	41.1	41.8	42.0	39.8	39.4	36.8	38.1	36.8	39.7	37.6	40.2	41.7	1.5	
	건설·가구·요업·토석제품제조	47.5	47.0	45.0	44.6	43.3	44.0	44.1	43.3	43.2	41.9	42.1	40.3	40.9	0.6	
	펄프·종이·종이가공품제조	40.5	38.7	39.4	36.2	36.1	36.7	36.1	36.3	34.8	37.3	39.3	39.8	40.0	0.2	
	출판·인쇄	35.3	34.8	34.9	33.7	33.1	31.5	31.5	31.0	31.8	33.5	34.1	34.6	34.1	▲ 0.5	
	화학제품제조	46.7	45.6	46.6	45.8	43.4	42.4	42.9	43.3	43.2	44.5	44.6	44.1	44.4	0.3	
	철강·비철금속·광업	47.4	48.1	48.7	49.1	46.8	45.3	44.4	42.8	44.8	46.8	45.2	43.9	43.0	▲ 0.9	
	기계제조	52.3	52.7	53.8	52.2	51.7	50.5	50.0	48.6	49.6	51.5	52.6	52.5	51.6	▲ 0.9	
	전기기계제조	48.1	48.8	49.9	47.3	46.2	46.1	45.9	45.8	47.3	48.4	49.7	47.7	47.3	▲ 0.4	
	수송용기계·기구제조	50.2	51.7	52.8	53.4	50.7	48.2	48.0	47.7	47.4	50.3	50.4	51.1	47.8	▲ 3.3	
	정밀기계·의료기계·기구제조	45.2	47.7	48.2	49.3	48.1	46.6	45.4	45.0	47.9	48.9	49.2	47.8	49.8	2.0	
	기타 제조	38.0	37.8	39.2	39.3	38.3	37.9	38.4	35.2	35.4	38.7	38.7	37.1	40.7	3.6	
전체		45.9	45.9	46.3	45.6	44.2	43.4	42.9	42.3	43.0	44.6	45.1	44.4	44.5	0.1	
도매	식품료품도매	41.3	41.4	41.0	39.6	39.9	39.0	37.1	37.6	38.3	39.7	40.6	42.6	42.9	0.3	
	섬유·섬유제품·장신구도매	37.7	36.8	36.7	35.9	35.3	34.3	30.7	30.2	31.1	32.2	33.3	35.5	37.0	1.5	
	건설·가구·요업·토석제품도매	46.8	44.3	44.3	42.9	41.5	41.0	39.5	39.3	39.0	40.5	40.2	38.2	38.7	0.5	
	종이류·문구·서적도매	37.0	36.0	35.9	34.6	33.8	32.9	33.5	31.8	33.2	35.1	37.7	37.3	38.1	0.8	
	화학제품도매	41.9	43.5	43.4	42.8	40.8	40.6	40.0	37.8	38.9	41.2	41.8	42.5	43.0	0.5	
	채광·비철금속·광업제품도매	48.7	50.0	47.3	47.3	46.1	37.8	40.4	40.8	39.0	38.5	39.3	39.7	42.3	2.6	
	철강·비철금속·광업제품도매	44.2	44.4	46.0	44.9	43.5	43.2	43.8	42.1	43.9	43.5	43.2	41.2	40.3	▲ 0.9	
	기계·기구도매	45.8	46.6	47.6	46.7	44.9	43.9	43.6	43.2	44.8	46.0	47.3	46.7	46.3	▲ 0.4	
	기타 도매	40.5	40.3	40.4	40.2	38.5	36.7	37.1	35.1	37.5	38.5	40.7	40.9	41.8	0.9	
	전체		43.3	43.4	43.8	42.9	41.5	40.6	40.0	39.1	40.4	41.5	42.5	42.3	42.5	0.2
	소매	식품료품소매	40.8	40.8	39.1	40.7	39.3	36.8	34.7	34.5	36.8	38.2	39.4	39.3	41.6	2.3
		섬유·섬유제품·장신구소매	37.7	37.3	36.3	36.2	38.2	36.7	32.0	30.8	30.7	32.3	34.8	38.0	40.2	2.2
의약품·의료장비소매		40.7	44.3	40.8	40.7	41.7	41.1	42.6	38.9	44.6	45.3	46.0	48.1	48.0	▲ 0.1	
가구류소매		31.7	33.3	28.8	30.6	37.0	22.7	27.3	26.4	28.8	33.3	27.8	35.0	40.0	5.0	
가전·정보기구소매		38.4	37.4	39.7	37.4	36.1	36.2	36.0	34.3	39.3	39.0	43.2	38.4	41.5	3.1	
자동차·동·부품소매		30.9	30.7	32.1	34.4	33.0	30.1	31.8	28.7	37.8	40.7	37.7	38.8	36.5	39.9	3.4
전문상품소매		35.2	35.7	36.2	36.8	36.2	36.3	36.0	39.2	41.4	43.7	42.3	39.4	40.5	1.1	
각종상품소매		43.3	45.0	42.1	41.7	41.8	41.2	39.1	40.5	42.6	41.0	40.6	47.1	49.7	2.6	
기타 소매		33.3	27.8	36.7	43.3	37.5	40.0	40.0	41.7	33.3	36.7	38.9	41.7	36.1	▲ 5.6	
전체			37.3	37.8	37.3	37.8	37.5	36.3	35.5	35.9	39.1	40.5	40.5	40.2	42.1	1.9
운수·창고			46.3	45.1	44.9	45.8	43.7	43.7	44.8	43.8	43.7	44.8	44.9	44.8	44.8	0.0
서비스		음식점	46.9	49.5	49.1	48.7	46.7	42.6	45.1	39.9	44.6	45.2	49.2	50.0	49.6	▲ 0.4
	전기통신	45.8	50.0	53.3	50.0	50.0	46.3	48.1	50.0	56.3	53.7	48.3	54.2	53.7	▲ 0.5	
	전기·가스·수도·열공급	53.7	50.0	51.7	48.3	50.0	46.3	43.8	44.4	50.0	50.0	48.3	55.0	53.7	▲ 1.3	
	버스·임대	54.3	52.7	53.8	51.7	51.8	49.7	49.9	49.1	50.9	50.0	49.3	49.6	47.9	▲ 1.7	
	호텔·호텔	45.2	47.5	47.7	44.4	46.2	46.3	47.0	47.6	47.7	49.5	48.6	51.4	53.1	1.7	
	오락서비스	38.0	37.6	38.3	39.5	39.4	39.5	36.4	36.5	34.4	36.7	40.6	38.7	40.2	1.5	
	방송	40.7	44.0	44.4	45.2	44.0	45.2	43.3	41.7	44.4	40.0	45.6	47.9	45.6	▲ 2.3	
	엔터테인먼트·경비·검사	46.2	46.0	49.4	46.8	45.7	45.8	43.1	42.6	44.6	46.9	47.2	47.8	48.1	0.3	
	광고관련	40.8	42.6	42.5	41.4	41.1	38.6	38.7	38.8	38.8	39.3	42.1	42.2	41.1	▲ 1.1	
	정보서비스	55.5	55.0	54.5	53.5	52.8	51.4	51.6	52.2	53.5	54.6	56.3	56.3	55.3	▲ 1.0	
	엔터테인먼트·소계	54.6	57.2	57.2	56.2	56.9	55.6	53.9	54.0	55.7	57.5	56.7	55.5	56.2	0.7	
	전문서비스	53.8	55.1	55.2	53.7	53.9	50.7	50.7	50.3	50.8	51.4	53.0	51.0	51.7	0.7	
의료·복지·보건위생	46.6	47.9	47.6	47.1	46.2	46.2	45.0	44.1	44.7	45.7	45.3	46.1	46.3	0.2		
교육서비스	40.3	44.7	45.1	40.7	41.7	42.4	41.7	39.9	40.5	40.2	39.5	41.2	41.1	▲ 0.1		
기타 서비스	47.2	48.1	48.7	48.4	47.2	44.9	45.2	45.0	47.4	48.1	47.2	46.1	46.8	0.7		
전체		50.1	50.6	50.9	49.7	49.2	47.7	47.3	47.2	48.3	49.2	50.3	50.1	49.9	▲ 0.2	
기타		47.5	44.3	44.9	43.1	42.8	40.6	37.7	41.5	37.3	41.7	42.0	43.2	40.2	▲ 3.0	
격차 (10개업종별 『기타』 제외)		14.4	14.9	16.2	15.4	15.3	15.3	15.5	14.4	11.3	10.4	10.3	9.9	7.8		
중국진출		49.0	49.5	49.2	48.8	46.2	45.5	45.3	44.7	45.6	47.4	47.8	48.2	47.9	▲ 0.3	
태양광발전		52.2	51.5	50.6	51.7	50.2	47.7	46.5	46.0	45.7	47.0	48.0	46.0	47.2	1.2	

※색깔없는 부분은 전월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대비 악화되는 감소를 나타냄.

※ 「태양광발전」은 셀·모듈, 부품·재료, 제조장치의 각제조회사, 에너지, 판매·시공을 포함함.

규모별: 6개월만에 전 규모가 악화

- 「대기업」이 48.4(전월 대비 0.8포인트 감소), 「중소기업」이 43.6(동 0.7포인트 감소), 「소규모기업」이 43.1(동 0.1포인트 감소)가 되어 6개월만에 전 규모가 악화하였다. 「대기업」은 중국이나 한국에서의 화물수입 침체나 건설공사등의 지연의 영향을 받은 『운수·창고』, 자동차나 가전·정보기기가 침체한 『소매』 등 8개 업계가 악화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에서는 『소매』는 귀금속 제품이나 여성·아동복, 서적·잡지소매 등이 악화하였다. 또한 사료가격의 급등이나 젓소 수의 감소로 낙농·유업의 어려운 경영환경이 계속된 이외에, 벼농사에서는 쌀 가격이 저조한 것도 있어 『농·임·수산』이 4개월만에 악화되는 등, 8개 업계가 악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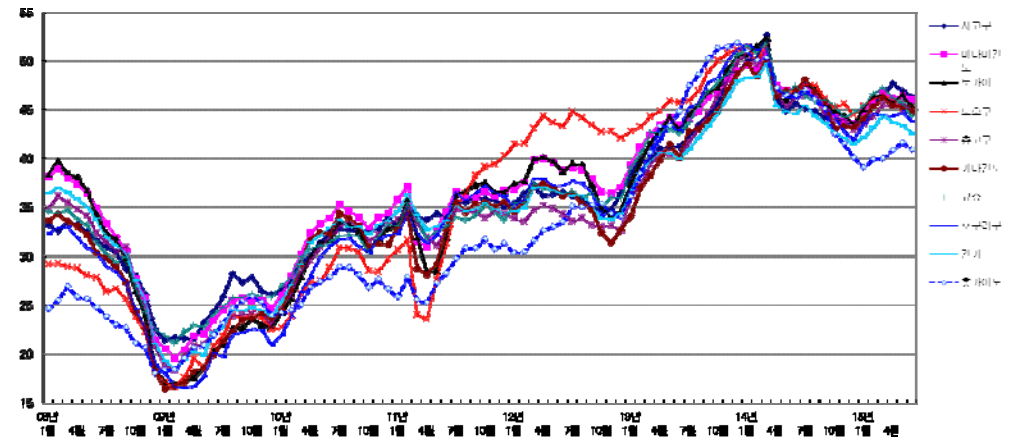
	14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비
대기업	50.0	49.7	49.2	48.1	47.5	46.9	46.6	47.1	48.0	48.6	48.9	49.2	48.4	▲ 0.8
중소기업	45.4	46.1	45.3	44.3	43.1	42.6	42.0	43.0	44.2	45.0	44.3	44.3	43.6	▲ 0.7
(그 중 소규모기업)	45.0	45.3	44.7	44.0	42.5	42.1	41.6	42.3	43.4	44.3	43.1	43.2	43.1	▲ 0.1
격차 (대기업-중소기업)	4.6	3.6	3.9	3.8	4.4	4.3	4.6	4.1	3.8	3.6	4.6	4.9	4.8	

※색상은 전월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지역별: 10개 지역 중 9개 지역에서 악화, 『큐슈』는 공공공사 감소와 호우로 대폭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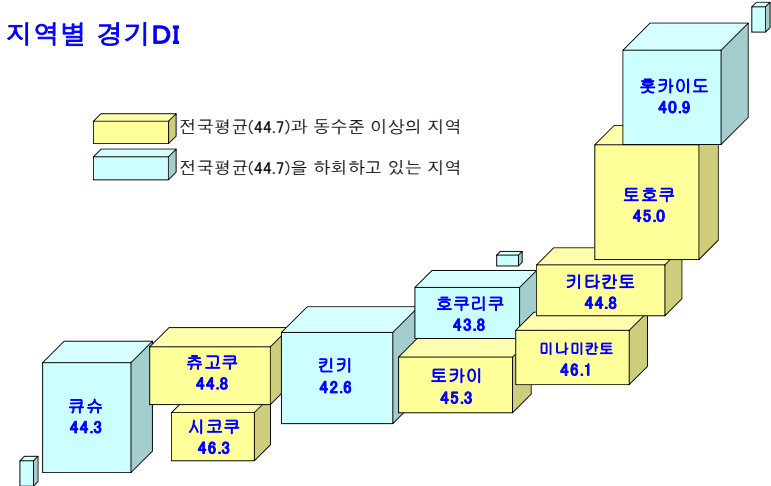
- 『홋카이도』나 『호쿠리쿠』, 『큐슈』 등 10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악화, 『토호쿠』가 개선되었다. 많은 지역에서 공공공사가 큰폭으로 감소하여 지방경제의 체감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 이외에, 『큐슈』 등 서일본을 중심으로 호우에 의한 기상 불안정도 악영향을 미쳤다.
- 『홋카이도』(40.9)…전월 대비 0.7포인트 감소. 5개월만에 악화하였다. 『운수·창고』(동 2.5포인트 감소)는 가솔린이나 경유, 중유 등 연료가격이 타지역과 비교하여 전월 대비 가장 상승한 가운데, 코스트 상승분의 가격전가가 진행되지 않아 5개월만의 악화가 되었다. 엔저에 의한 원재료 가격상승에 더하여 일본, 러시아 언어·송어 어업교섭의 지연이나 할당량의 7할 감소도 영향을 끼친 『농·임·수산』(동 10.1포인트 감소)등, 10개 업계 중 6개 업계가 악화하였다.
- 『호쿠리쿠』(43.8)…동 1.0포인트 감소. 3개월 만에 악화하였다. 『건설』(동 2.4포인트 감소)는, 재해관련 공사의 감소나 일부지역을 제외한 호쿠리쿠 신칸센의 공사종료 등 대규모 공공공사가 대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호조였던 건설기계에서 국내향의 감산이 눈에 띄기 시작한 외에, 대형 설비투자가 적었던 『제조』(동 1.3포인트 감소)등, 10개 업계 중 5개 업계가 악화하였다.
- 『큐슈』(44.3)…동 1.3포인트 감소. 3개월연속 악화하였다. 공공공사의 발주건수·금액이 함께 대폭적인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카고시마시에서 6월의 강수량이 100년만에 기록을 갱신하는 등 큐슈 각지에서 호우가 계속된 결과, 공사의 진척지연에 의한 건설이나, 더욱이 일조부족에 의한 야채가격의 상승 등으로, 농림수산업이나 소매등에 악영향을 미쳤다. 『큐슈』는 2014년 4월(4.4포인트 감소)이래 14개월만의 악화폭이 되어, 10개 업계 중 7개 업계가 악화하였다.

지역별 그래프(2008년 1월 부터의 월별추이)



지역별 경기DI

- 전국평균(44.7)과 동수준 이상의 지역
- 전국평균(44.7)을 하회하고 있는 지역



	14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비
홋카이도	46.4	47.0	46.0	45.0	42.5	41.5	40.1	39.1	39.9	40.0	40.8	41.6	40.9	▲ 0.7
토호쿠	46.8	47.6	47.5	46.1	45.2	45.6	44.5	45.4	46.0	46.5	46.0	44.9	45.0	▲ 0.1
키타칸토	47.0	48.1	46.8	45.8	43.1	43.4	43.2	44.1	45.3	46.2	45.4	45.2	44.8	▲ 0.4
미나미칸토	47.1	47.4	46.5	45.4	44.4	43.8	43.6	44.7	46.0	46.8	46.2	46.5	46.1	▲ 0.4
호쿠리쿠	46.2	46.5	46.3	45.2	44.3	42.8	41.9	43.6	44.6	44.4	44.4	44.8	43.8	▲ 1.0
토카이	46.9	47.5	47.0	45.6	44.7	44.4	43.4	45.0	46.3	46.4	45.6	46.5	45.3	▲ 1.2
킨키	44.6	45.4	44.4	43.7	42.7	42.1	41.5	42.2	43.2	44.5	43.7	43.4	42.6	▲ 0.8
츄고쿠	46.3	46.5	46.4	44.5	43.9	44.0	42.9	43.6	44.4	45.5	45.4	45.6	44.8	▲ 0.8
시코쿠	45.6	45.1	44.9	44.2	44.5	43.5	43.6	43.8	45.5	46.6	47.7	46.9	46.3	▲ 0.6
큐슈	47.4	46.4	45.9	46.0	45.4	44.2	44.7	45.3	46.6	47.2	46.2	45.6	44.3	▲ 1.3
격차	2.8	3.0	3.1	2.4	2.9	4.1	4.6	6.3	6.7	7.2	6.9	5.3	5.4	

※색상은 전월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